

남은 강의 스케줄—내용상 약간의 변경

- 4월 6일 시편 (아가)
- 4월 13일 잠언
- 4월 20일 욥기 (전도서)
- 4월 27일 다섯 두루마리 (The five scrolls): 아가서, 룻기, 애가, 전도서, 에스더
- 5월 4일 다니엘서, 마카베오 상하
- 5월 11일 제2정경의 지혜문학: 집회서, 지혜서
- 5월 18일 결론: 전승에서 정경으로
- 5월 25일 종파티

A. 서론

- 시편 내용의 차이
 - 칠십인(LXX)역 시편은 151 편. 히브리성서와 개신교 구약성서는 150 편.
 - 시편 151 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를 축하하는 내용.
 - 히브리어 시편 9-10 편; 114-115 편이 칠십인역에는 하나로 묶여 있고(9 편, 113 편)
 - 히브리어 116 편, 147 편이 칠십인역에는 두 개로 나뉘었다(114-115; 146-147).
 - 사해문서 시편 두루마리에는 시편 후반부 1/3 의 배열이 마소라 사본(MT)과 다르다.
 - 결론=> 최소한 구약시대에는 시편이 아직 closed canon 이 아닌 상태로 열려있었다.
- 시편(Psalms)은 성문서 첫 부분에 나온다.
 - 토라와 예언서가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도식이라면, 성문서는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. 시편은 찬양(Praise)과 애가(Lament) 모두를 담고 있다.
 - 시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힐라(תְּהִלָּה)-찬양, 혹은 미즈모르(מִזְמוֹר)-멜로디는 시(詩)보다는 노래에 가깝다=> 예배의 찬송시처럼 공동체 산물.
- 전통적으로 다윗이 저자라는 주장에 대해
 - 150 개 중 73 개의 시편 제목에 다윗이 등장. 그 외 다윗은 음악가로 시와 노래를 진 것으로 기억된다(삼상 16:16-23; 삼하 1:17; 삼하 22 장//시편 18 편; 삼하 23:1-7).
 - 칠십인역에는 85 개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다고 하며, 사해문서에는 3600 개의 시편과 446 개의 노래 등 총 4050 개 작품을 남겼다고 말한다(11QPs).
 - 레다비드(לְדָוִד): for, of, by 등 여러 의미로 쓰인다.
 - For (...를 위하여) => 다윗을 위한
 - Of (...에 관한) => 다윗에 관한, 다윗과 관련된
 - By (...에 의한) => 다윗에 의한. 이것이 저작자와 관련이 있다.
 - Belonging to (...에 속한) => 레멜렉(לְמֶלֶךְ) 향아리. 다윗의 도서실, 소유권.
 - 일부 시편들은 솔로몬(72, 127 편), 아삽(50, 73-83 편), 고라 자손들(42; 44-49; 84-85; 87-88 편), 모세(90 편)와 연결되어 있다.
- 다섯 권으로 나뉨: 1-41 편, 42-72 편, 73-89 편, 90-106 편, 107-150 편
 - 각 권은 짧은 송영(doxology)으로 마친다. (e.g., 89 편 마지막=> בְּרוּךְ יְהוָה לְעוֹלָם אָמֵן וְאָמֵן).
 - 특히 72 편 마지막 절은 "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난다"고 적고 있다.
 - 각 권은 전체 시편이 통합되기 전 무리지어 있었음을 암시.
 - 첫째 권(1-41 편)에는 1, 2, 10, 33 편을 제외하고 모든 시편 제목에 다윗이 들어간다. 둘째 권 마지막절에 있는 "다윗의 기도가 마침"이라는 설명은 아마도, 첫째 권 이전에 독자적으로 이미 수집된 것이며, 통합된 이후에는 첫째, 둘째 권의 마침으로 확대 해석.
 - 엘로힘 시편이 제 2, 제 3 권에 집중되어 있다. 보통은 야훼(주)라는 이름이 등장한다.

- 시편 120-134 편은 모두 "성전에 올라가는 노래"(A Song of Ascent)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, 아마도 특별한 절기에 쓰인 노래들의 모임으로 보인다. 시편 73-83 은 모두 아삽(Asaph)의 시로 구분되어 있다. 교회 찬송가처럼 각각의 찬송/노래가 후대에 집대성.
- 아마도 모세 5 경을 염두에 두고, 시편에서도 5 개의 책을 말하고 싶었던 듯.
- 사해문서의 시편 두루마리(11QPs^a=11Q5)에 의하면 시편 후반부(4, 5 권)의 배열이 자유롭다. 또한 외경 시편도 포함한다. 기원전 1 세기 초까지도 시편의 내용과 순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.

B. 시편의 종류

- 궁켈(Hermann Gunkel)의 구분
 - 양식비평(Form Criticism)에 입각, 시편은 고정된 형식(genre)과 함께 사회적 현장감(Life setting)을 갖는다.
 - 찬송시(Hymns of Praise): "할렐루야(הלללוהו)", 146-150 편.
 - 야훼 즉위시(Enthronement Psalms): 93, 97, 99 편 => "야훼가 왕이시다"
 - 개인 및 공동체 애가(Individual and Communal Laments) => '시편의 기본 자료' (궁켈)
 - 개인 칭 공동체 감사시(Individual and Communal Thanksgiving)
 - 제왕시(Royal Psalms): 2, 110 편
 - 지혜시: 1, 119 편
 - 베스터만(Westermann)은 시편을 주로 찬양(praise)과 애가(lament)로 이해했으며, 찬양을 서술적 찬양(descriptive praise)과 고백적 찬양(declarative/confessional praise)으로 세분했다
- 시편의 요소
 - 시적인 표현 기법과 형식 도입: 대구법(synonymous parallelism), 교차대구기법(chiastic structure), 비유, 은유(metaphor) 등.
 - 개인 애가(Individual Lament)
 - 구성 요소: Westermann, Praise and Lament in the Psalms (p. 64)
 - 1) Address/Summon (YHWH, God of Israel, my God, Lord ...).
 - 2) Lament (Complaint).
 - 3) Confession of Trust
 - 4) Petition (p. 157)---the most significant part, "heart of the genre".
 - 5) Assurance of being heard.
 - 6) Double Wishes/curses (p. 164)---jussive form (cf. imperative in petition)
 - 7) Vow (of thanksgiving offering)
 - 8) Praise of God.
 - 생각해 볼 요소: (4), (5), (7). Q. 불평과 간구(4)에서 갑자기 확신(5)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?
 - 1) 당시에는 제사장이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선포하기에 (예를 들어,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선언), 그 이후의 감사—그래서 감사제물 드림(7)—를 염두에 두었음을 말한다. 지금은 무엇에 근거하여, 이런 확신을 얻을까?
 - 2) 마찬가지로, 크리스천의 기도의 끝은 찬양으로 승화되어야. 이 가운데 변화—회개(메타노에오, μετάνοια)—는 내 생각/요구를 하느님의 생각/뜻에 맞게 바꾸는데 있다.
 - 3) 구약시대에 토라(가르침)가 그 중심에 있었다면, 지금은 예수의 가르침이 우리들 기도의 중심에 있어 생각과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.
 - 등장인물(Subjects): God, I, and Enemy. Q. 여기서 대적자(enemy)는 누구일까?
 - 1) 하느님: 왕이신 하느님=> 시온 신학과 연결 (46, 48, 76 편); 곧 하느님, 다윗, 예루살렘이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.

- 2) 나: 인간 왕 다윗=> 시편 2:7; 110:1. 신약성서에서 예수를 이해하는 모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, 곧 왕된 메시아 사상이다. (하지만 막 12:35 절은 이에 대한 반발.) 또 다른 모델은 이사야 53 장이 보여준 종의 모습(servant song).
- 3) 대적자/악인

결론/평가

- ✚ 시편 137 편이 말하는 복수는 그다지 도덕적이거나 교육적이지 않다. “시편의 힘은 바로 인간의 모든 감정을 표현했다는 데 있다”(374). 감정을 표출—승화되었다는 면에서 제어—할 수 있다는 점이 심리학적인 면에서도 좋을 것이다. Q. 1970 년대 기독교 운동이 대학생들의 사회운동을 막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? 또 특히 미국에서 스포츠 등에 열광하는 에너지를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쓸 수 있다면?
- ✚ 시편 저변에 흐르는 시온 전승/신학은 모세의 토라 전승/신학과 차이를 보인다. 그럼에도 시편 1 편을 서두에 놓음으로써, 시편은 토라 전통 속에 속하며 그 안에서 해석되어 진다. (아마도 시편 2 편이 다윗 시 모음의 첫 머리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지만, 1 편과 함께 시편이 토라를 살아내는 신앙인의 모습을 반영한다. 시편을 5 부분으로 나눈 것도 의도적인 듯.)
- ✚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개개인의 감정과 경험은 교회사의 전통과 가르침에 예속될 필요가 있다. 정체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. 시편의 첫 편이 토라/가르침에 순종(obedience)을 말하고 있다면, 마지막 편은 찬양이다.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다.

생각해 보기

- 1) 분노 제어(anger management)와 정당한 표출과의 차이는?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(2007 년)과 이번 주 오클랜드 총기난사 사건(2012.4.2)이 시사하는 바는?
- 2) 내가 좋아하는 시편은? 왜?